

# 스마트 교육 시대의 문학교육

김정우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 I. 들어가는 말
- II. 문학의 소통 양상의 변화: 매개를 통한 반(半)대면성
- III. 문학교육 공간의 변화: 가상 공간과 디지털 교과서
- IV. 맺는 말

## I. 들어가는 말

2000년도에 발간된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지금은 워드프로세서로 글을 쓰지만 앞으로는 웹 편집기의 발전된 형태인 ‘하이퍼텍스트 프로세서’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글을 쓰게 될 것이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이퍼텍스트 프로세서로 글을 쓴다고 상상해 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책 크기보다도 작은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닌다고 상상해 보라. 그리고 모든 컴퓨터들이 유선,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라. 각자는 자기 컴퓨터에 글을 쓰고 있지만 그 글들은 자동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연결된다(물론 글쓴이가 원한다면). 그리고 이 연결은 책처럼 가상의 연결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의 책을 써 나가고 있는 것이다(배식한, 2000: 155-156).

위에서 말한 ‘하이퍼텍스트 프로세서’라는 기기는 14년이 지난 지금, 발

명의 시도는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상용화에는 실패한 듯하다. 반면 모든 사람들이 책 크기보다도 작은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닐 것이라는 예상은 이제 어느 정도 현실이 되었다. 또한 유무선의 연결, 개인의 글이 전 세계에 동시에 연결된다는 생각 역시 SNS 시스템으로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전화를 거는 기계라는 애초의 개념이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 되어 버린 듯한 스마트폰은 이 사회를 ‘초연결사회<sup>1</sup>’로 만드는 데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여러 영역에서 ‘스마트’한 신기술은 새로운 삶의 양태를 선보이면서 인류 문명사의 한 전환기라고 부르게 될 수도 있겠다 싶은 많은 변화들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이 매우 급격하고 강력해 보이지만, 정말 인간의 삶,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늘 연결되어 있고, 공간의 제약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보 획득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은 이러한 변화가 이전의 인간의 삶에 대해 편의와 효율을 더 높이는 수단 차원의 변화에 가까워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들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보다 무한 경쟁과 일충 강력해진 노동 착취의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거나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의 소외를 놓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Carr, 2011) 나아가 ‘중독’(신의진, 2013)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전혀 기대하거나 원하지 않았던 데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현실적인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된다. 이러한 우려들을 충

---

1 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는 “IT를 바탕으로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지능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혁신의 창출이 가능해지는 사회”로 정의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스마트 기기의 확산, 정보의 폭발적 증대, 기술적 연결의 완성 등의 기술적 진화와 함께,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 문화,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 인간 중심의 고차원적 삶에 대한 지향 등과 같은 인간 육구 변화를 동인으로 한다. 여기에 인터넷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상황인식 컴퓨팅, 휴대/착용 가능 기기 등의 기술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분히 고려하면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현실의 변화를 관찰하고, 분석하며, 신중하게 미래를 계획하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 논문은 스마트 시대의 문학교육이라는 광범위한 주제 가운데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문학의 소통 양상의 변화, 그리고 문학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교육 자료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전자는 주로 문학교육의 내용 중 한 부분에 연관이 된다면, 후자는 문학교육의 방법과 실천 부분에 연관이 될 것이다.

문학의 소통, 즉 작가-작품-독자의 관계에 관한 사항은 이미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문학교육의 내용 중 하나이다. 인간의 의사소통 환경의 변화가 문학의 소통 방식에 일정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 변화를 세밀히 살피고 필요할 경우 그 변화를 새로운 교육 내용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시대를 맞이하여 전통적인 학교 교실, 그리고 종이책 형태의 교과서와는 다른 틀을 통해 문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에 주목하고,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이 새로운 공간과 매개가 보다 나은 문학교육의 방법과 실천을 고민하는 데에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실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학의 변화, 그리고 문학교육의 장의 다양화에 대해 문학교육은 그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심도 있게 파악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주체적, 비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교과에서 ‘스마트 교육’이 주로 기술이나 기기에 바탕을 둔 교수학습의 기법 다양화 차원의 문제이거나 교사들의 교수학습 지식 차원의 문제<sup>2</sup>인 것과는 달리 문학교육의 본질적인 내용과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

2 김혜정(2013)에서는 “스마트 능력의 신장은 학습자의 과제라기보다는 교수자의 과제”라는 관점에서 스마트 교육은 학습자 대상의 국어교육의 내용이기보다 교사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 II. 문학의 소통 양상의 변화: 매개를 통한 반(半)대면성

스마트 시대를 맞아 문학은 그 소통 방식, 나아가 존재 방식에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전자책과 종이책이 경쟁 혹은 병존하고 있다. 주로 잡지나 신문 연재, 혹은 단행본 출간이 주를 이루었던 소설의 경우에 인터넷 연재 등을 통해 독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시 역시 그 유통과 향유 과정에 복합양식 텍스트화(김정우, 2011)를 거쳐 페이스북, 유튜브, 이메일,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예전에는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다양한 경로로 독자에게 전달된다.

그 가운데에서도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작가, 아마추어 독자들, 문학 전문 출판사 등 여러 주체들이 ‘팟캐스트(podcast)<sup>3</sup>’를 통해 책 읽어 주기, 책 소개하기, 저자와의 대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품을 둘러싼 많은 정보들을 독자/청취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가 시작된 순서대로 문학 분야의 주요 팟캐스트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애플 itunes Podcast 문학 분야 주요 프로그램

명칭	진행자	서비스 시작	주관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	김영하(소설가)	2010년 1월 29일	진행자

3 팟캐스트는 애플사의 아이팟(iPod)의 pod와 방송(broadcast)의 cast가 합쳐진 말이다. 팟캐스팅과 같은 방식의 배포 - 구독 모델은 팟캐스트라는 말이 생기기 이전인 2001년에 만들어졌으나 팟캐스트라는 용어는 2004년에 처음 사용되었다. 팟캐스팅이 다른 온라인 미디어와 다른 점은 사용자가 매번 미디어를 선택하거나 찾아 들어가는 방식이 아닌 구독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이다. 또 팟캐스팅을 통해서 자본이 없는 독립 제작자들도 자신만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청취자들은 아이튠즈와 같은 팟캐스트 구독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아 청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일부 팟캐스트 구독 소프트웨어는 미디어 파일을 자동으로 MP3 플레이어에 전송해 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동영상 파일을 전달하는 팟캐스트도 다수 만들어졌다(이상은 위키피디아의 podcast 항목의 설명을 간추림).

이동진의 빨간 책방	이동진(전직 기자)	2010년 5월 1일	위즈덤하우스
책읽는 라디오	한지훈(대학생)	2010년 7월 28일	다수의 재능기부
라디오 책다방	김두식(교수/법학) 황정은(소설가)	2013년 1월 31일	창비
푸른책방 BOOK소리	최진우(기획팀) 송지연(기획팀)	2013년 7월 15일	푸른책들
문학이야기	신형철(문학평론가)	2013년 7월 31일	문학동네
읽어드림	김인영	2013년 8월 7일	불명
하루키 라디오	최민석(소설가)	2013년 8월 27일	민음사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문학 분야의 팟캐스트는 소설가 김영하가 다른 지원 없이 운영하는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을 최초로 잡을 수 있을 듯하다. 2013년 들어서는 창비, 문학동네, 민음사 등 굴지의 출판사들도 본격적으로 팟캐스트라는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분명 대중들에게 스마트폰이라는 물적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기에 가능해진 현상이다. 팟캐스트를 듣는 수용자들의 상황이야 천차만별이겠으나, 그 가운데 상당수는 예전 같았으면 자신이 직접 책을 펼치고 읽었을 지하철, 버스, 침대 위 등에서 이제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팟캐스트를 듣고 있을 것이다. 2009년 11월 아이폰이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그에 따른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 문화가 함께 들어왔으며, 약 3-4년이 경과한 후 메이저 출판사에서 앞다투어 팟캐스트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아마도 구술 시대와 문자 시대를 거친 인류가 새롭게 맞이하게 된, 제3의 소통 문화 시대의 전조일지도 모른다.

### 1. 대면성, 비대면성, 반(半) 대면성의 소통

구술 시대의 문학은 짓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시공간을 함께 하는 상황에서 창작되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이 전파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전달

자와 수용자가 시공간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전파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적 특성을 ‘대면성’이라고 해 두자.

문자에 기반하여 문학이 창작되고 향유되는 상황은 위와 같은 대면성이 사라지고, 대신 작가가 있는 곳에는 독자가 없고, 독자가 있는 곳에는 작가가 없는 상황에서 창작되고 수용된다. 이는 일차적으로 ‘실제 작가–실제 독자’의 분리 정도로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문학 작품의 소통은 말하는 이로서의 작가가 텍스트 밖에 있고, 작가와 100% 일치하지는 않는 텍스트 안의 말하는 이가 또 있다는 점에서 중층적 구조를 가진다. 여기에 다시, 분리된 작가와 독자가 각기 상상하며 떠올리는 가상의 ‘상대방’까지 더해지면 삼중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 삼중구조는 Booth(1990)에서 ‘내포 작가(함축된 작가)’(implied author)의 개념이 제시된 아래 문자에 기반한 문학 작품의 소통 구조로 대략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이해된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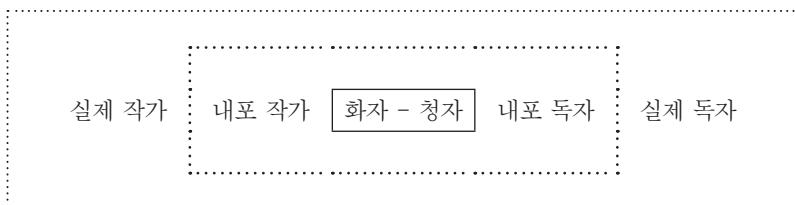


그림 1. 문학 작품의 소통 구조

실선으로 된 텍스트 안의 화자, 그리고 명백히 텍스트 바깥에 있는 실제 작가는, 일부 자전적 작품에서는 그 동일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유사하나 엄밀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 사이에 놓인 ‘내포 작가’ 또한 실제 작가와 다르며, 내포 작가는 흔히 작품 속의 ‘나’로 나타나는 화자와도 같지 않다. 이 내포 작가는 실재하는 인간의 이상적인, 문학적인,

4 논의의 편의를 위해 장르에 따른 구별, 즉 시에서의 화자, 소설에서의 서술자 등으로 달리 불리는, 그리고 그러한 명칭으로 변별되는 차이는 여기에서는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창조된 변형이다. 그는 그 자신이 선택한 모든 것, 인물의 설정, 작품의 문체나 어조, 기법 등 작품을 이루는 모든 것의 총합이다(Booth, 1990: 86).

‘내포 작가’는 실제 작가의 구체적인 勞作의 소산으로 보아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작품을 읽고 난 후 실제 독자가 구축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실제 독자의 입장에서 『치숙』(채만식)이나 「추천사」(서정주) 등의 작품을 읽을 때, 이러한 화자를 설정한 존재로 실제 작가인 채만식과 서정주를 상정하게 되지만, 이때의 채만식과 서정주는 엄밀히 말해 실제 인물로서의 개인 채만식과 서정주라기보다는 일군의 작품들을 하나의 무리로 묶어 주는 기호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존재에 가까우며, 실제 독자가 작품을 바탕으로 떠올리게 되는, “실재하는 인간의 이상적인, 문학적인, 창조된 변형이다.” 이러한 내포 작가를 가능하게, 또는 필요하게 하는 조건을 ‘비대면성’이라고 해 두자.

이와 함께 구술 시대의 대면성, 문자 시대의 비대면성이라는 상황의 중간적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18-19세기에 글 모르는 평민들도 소설을 즐길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이른바 ‘전기수(傳奇叟)’의 존재는 이 중간적 형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작가는 아니지만, 실제 독자에게는 작가와 대면하여 직접 이야기를 듣는 듯한 대면성의 상황을 연출하여, 심지어 이야기를 듣던 청중이 흥분하여 전기수를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그 실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sup>5</sup> 임경업 장군이 죽는 대목을 듣고 있던 청중이 이야기 속의 인물을 죽이면 안 된다고 흥분한 나머지, 그저 이야기를 낭독하는 데 불과했던 전기수가 마치 임경업을 죽인 것처럼 착각을 하여 전기수를 죽이려 들었다면, 이때의 전기수는 독자에게 작가와 진배없는 존재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작가와 실제 독자를 중간에서 이어 주는 전기수와 같은 존재를 ‘매개자’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상황 조건은 ‘반(半)대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5     실학자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 전한다. 최혜실(2007: 57) 참고.

대면성과 비대면성, 그리고 그 중간적 형태로서의 반대면성을 고려할 때, 2013년에 급격히 증가한 팟캐스트를 통한 문학 읽기는 새로운 차원의 반(半)대면성, 그리고 책으로부터 팟캐스트라는 매체의 이동을 통한 재매개 (remediation)(Bolter, 2006)라고 볼 수 있다.

이 분야의 원조 격이라 할 만한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에서는 진행자 김영하가 짧게는 16분(1회, 2010. 1. 29), 길게는 1시간21분(53회, 2014. 1. 8) 동안 작품(주로 소설)을 읽어 주고, 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김영하는 꽤 긴 분량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틀리게 읽는 법이 없이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로 작품에 맞게 적절한 어조를 구사하며 읽는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행자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과 진행자가 접속해 있음, 즉 공간은 다르지만 진행자가 자신과 함께 있다는 느낌을 가지며 작품을 듣는다. 이 부재의 존재성은 음성, 구술이 가지는 힘이다. 이는 종종 작가와 대면하고 있는 기분을 주기도 하며, 작가가 나를 위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작가'의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읽어 주어야 하는데, 김영하는 그런 점에서 꽤 근사한 낭독을 보여 주고 있다.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책을 찾아서 읽을 정도의 열의와 관심은 없으나 문학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 중간 지대의 불특정 다수들에게 과거 전기수와 유사한 기능으로 문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다만 전기수가 현실 공간에서 제한적 수의 독자들과 대면하며 작가와 독자를 매개하는 반(半)대면성의 존재였다면, 팟캐스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무제한의 독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바탕으로 작가와 독자를 매개하는, 그래서 그 영향력이 훨씬 더 클 수 있는 반대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새로운 소통 방식을 통한 독자의 능동적 위치 조정

문학 팟캐스트 가운데 창비의 라디오 책다방은 법학 전공 교수(김두식)

와 소설가(황정은)라는 두 매개자가 작가와의 대화를 나누는 데 중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있다. 아래는 공선옥 작가 출연 내용의 일부를 내용 중심으로 간추려 전사한 것이다.<sup>6</sup>

[가]

김: 이 소설 읽으면서, 등장인물들 대부분이 다 미친 놈, 미친 년으로 나오는 거 같아요? 실제로 (이런 인물들을) 보고 사셨던 건가요?

공: 그럼요. (중략) 우리 외가가 이태 선생 남부군에도 나오는, 여순 사건 그쪽이에요. 여수 순천에서 지리산 넘어가는 마을이 쑥대밭이 됐어요. 거창양민 학살사건처럼 대규모는 아닌데, 열댓명 가장들이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는,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엄청 많았어요. (중략) 우리 외할아버지도 그때 학살당했어요. 그때 나주 돌격대 부대라고, 토벌대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낮에 출몰하지요. 밤에는 산사람들이 내려와서 먹을 거 가져가고. 촌사람들이 줄 수밖에 없지요. 강냉이, 갑자 몇 알 준 게 나중에 죄가 되어가지고…… 토벌대들이 와서 (빨치산들) 찾아내라 하고 못 찾아내면 그 자리에서 갈겨 버리는 거예요. 내통했다고.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딱 책보자기 매고 학교 갈려 하는데 그 마을 당산나무 앞에서 아버지들이, 열다섯 집 아버지들이 한 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대로 갈겨져 죽어 버린 거예요. 그 피가 우리 어머니에게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 열 살 때.

김: 아, 이게 (소설 속) 정애 어머니 이야기가 그대로, 선생님 어머니 이야기…….

공: 네, 그래요. 어머니 속에는, 그때 받은 충격이 평생 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마흔 여섯에 돌아가셨는데, 살아 있을 때, 가끔 열 살짜리 아이처럼 울어요. 정말로 얘기처럼. 그때는 그게 트라우마인 줄 몰랐어요. 먹고사는 게 힘들는데 그런 건 생각도 못했지요. 그런 개념 자체도 없었고. 근데 나는 늘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창피하거나 짜증만 났어요. 근데 우리 엄마 자신도, 마음 속

6 2013년 5월 15일, 제8회 “공선옥—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중에서(<http://blog.changbi.com/lit/?p=16636&cat=1454>).

에 왜 그런 슬픔이 있는지 모르셨던 거지요. 내가 소설을 쓰고 살았지만, 참 내가 우리 엄마를 간과하고 살았구나, 돌아가신 지가 삼십년 가차워 오는데, 글 쓰고 산 지가 이십이 년짼데, 그동안 내가 왜 우리 엄마의 그 한을 무관 심했던가 싶더라고요.

김: (침묵)

공: 이번에 광주 이야기 쓰면서, 지금도 나주 정신병원에 입원해들 있어요, 정애로 묘사된 여인이. (소설 속 등장인물들) 그게 다 사실이에요. 오만수, 묘자, 다 사실에요. 소설보다 더 징그러운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일일이 다 적어 줄 수가 없어요.

김: 아니 묘자씨가 남편 죽이고 그런 것도 사실인가요?

공: 그럼요. 다 사실이에요.

김: (말문이 막히다가) 아, 전, 그건 소설일 거라고……. (중략)

공: 난 독일 같은 나라가 너무 부러운 게, 진짜 오늘날도 끊임없이 자신들의 과오와 상처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김: 그것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길일 테니까요.

공: 그렇지요. 기억한다는 건 엄청 중요한 일이거든요. (중략) 그럼에도 이것은 문학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지나치게 현실적인 삶을 살아요. 그렇지만 원래 온전한 삶이란 실제와 환상, 사실과 신화가 공존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사람들, 신화가 살아 있는 삶이 온전한 삶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신화의 세계, 온전한 삶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 버렸지요.

김: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광주에 대해 알고 있다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아, 광주에 대해서는 이제 들을 만큼 듣고, 알 만큼 알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구요. 그런 점에서 이번 작품이 그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잘 해주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길게 인용한 이 대화에서 우리는 작가가 생각하는 소설, 그리고 독자가 생각하는 소설 사이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소설은 기본

적으로 허구라는 전제 하에 편안히 작품을 읽었던 진행자는 작가와의 대화 과정에서 작가의 기대나 의도와 자신의 읽기 사이에 뭔가 어긋남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진행자의 이러한 깨달음은 곧 자신이 어떤 독자였는지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광주에 대해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해 왔던 것, 또 소설 이란 흥미를 더하기 위한 허구이기에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도 그저 흥밋거리로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에 대한 성찰과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작가가 작품을 쓰면서 상정하게 되는 독자가 ‘내포 독자’라면, 이 팟캐스트의 진행자, 많은 독자들과 작가를 이어 주는 매개자로서의 진행자는 우리에게 이 ‘내포 독자’의 한 전형을 보여 준다. 작가가 작품을 쓰며 기대한 독자의 상에 근접하는 자기 조정의 과정을 거쳐 보다 더 그 ‘내포 독자’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포 독자’를 보다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은 실제 작가와의 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신 한 명의 독자인 진행자가 작가와 대면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소설 읽는 자신에 대한 성찰, 작품이 기대하는 위치로 자기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찰과 조정이 작가와의 대화가 없었다고 해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평범한 독자들은 그러한 위치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위의 예에서처럼 작가와의 대화는 이 작품에 함축되어 있는 어떤 존재로서의 독자에 독자 자신의 위치를 보다 용이하게 일치시킬 수 있게 한다. 물론 팟캐스트 이전에도 이러한 ‘작가와의 대화’는 많았을 것이고, 그것을 기록해 둔 문자 기록도 꽤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히 문자로 기록된 대화는 다시 기록자의 주관이라는 변형을 거치게 되며, 후대의 독자로서는 그것을 찾아 읽는 데에도 제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팟캐스트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개별 작품의 작가들이 기대하는 내포 독자의 위치를 팟캐스트를 접하는 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며, 심지어 작가 사후에도 아무런 변형 없이 그것이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차이가 있다.

한편 대면성은 독자와 작가가 또 다른 지점에 이르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아래의 예는 역시 창비 라디오 책다방에서 소설가 정이현이 출연한 회차 중, 진행자인 소설가 황정은이 소설 속의 혀 이미지의 의미를 날카롭게 묻는 장면이다.<sup>7</sup>

[나]

황: 작품 속에서 시점이 다른 화자들이 교차 서술하잖아요. 길게 등장하지는 않는데, 각각의 이야기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혀’에 관한 이미지들을 인상 깊게 봤어요. 뒤에 작가의 말 중에 ‘발설되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90년대를 그렇게 본 건가 묻고 싶었어요. 선생님 말씀 들어 보니까, 성장기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제대로 발설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질병적인 실어 상태? 그걸 좀 더 여쭙고 싶어요. 어떤 의미에서…….

정: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혀…… 사실은…… 음…… 되게 재밌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혀는 되게…… 음…… 조심해야 되는 거라는 것이 제겐 되게 강렬한 것 같아요. 혀는 충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 안에 혀에 대한 억압과, 그걸 풀고 싶은 그런 욕망과,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아, 역시, 아무도 읽어주지 않았는데, 이럴 때 너무 좋아요. (중략) 문장 속에서 섬세하게 이런 걸 읽어 내 주시는 좋은 독자이신 것 같아요.

예민하고 날카로운 독자인 진행자는 작가에게 어떤 이미지의 의미에 대해 묻는다. 작가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다소 당황하며, 말을 더듬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에 그러한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본인도 놀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의미를 예리하게 찾아 읽어 준 독자에 대해 어린애처럼 좋아한다.

7 2013년 7월 29일, 제15회 “정이현—안녕 내 모든 것” 중에서(<http://blog.changbi.com/lit/?p=17723&cat=1454>).

물론 이 대화는 겨우 너댓 살 차이 나는, 전문가로서의 작가들끼리 가볍게 주고받은 칭찬과 수다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대면성의 순간에 작가를 당황하게, 또 기쁘게 했던 독자의 질문은, 독자의 입장에서 작가의 부재 상태로 작품을 읽으며 상상한 ‘내포 작가’에 대한 궁금증의 소산이며, 이것이 실제 작가가 명확하게 의식하지는 못한,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문학의 소통 과정에 존재하는 삼중의 층위를 좀 더 선명히 보여 주는 예이다. 또한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며 작품을 읽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독자의 자세이며, 그렇게 ‘내포 독자’에 근접하는, 나아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독자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독자의 능동성과 주체성의 궁극적 도달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바, [가]로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내포 독자’의 위치로 조정해 가는 매개자/독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나]에서는 작가가 떠올린 ‘내포 독자’의 범위를 살짝 넘어선 독자의 질문을 통해 실제 작가와 독자가 생각한 ‘내포 작가’와의 미세한 불일치, 그로부터 보다 선명해지는 문학 소통의 중층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팟캐스트에 많은 출판사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든 것은 이 소통의 공간이 작가와 독자를 매개하고, 그 매개를 통해 양측이 모두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더하며, 특히 독자들로 하여금 문학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작가의 창작 행위 자체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지만 수용 과정에서 독자가 접하게 되는, 이전에는 접할 수 없었던 형태의 정보들로 인해 독자와 작품, 나아가 독자와 작가 간의 상호작용은 조금 더 활발해질 것이다. 이는 독자들이 문학 소통 구조 속의 자신의 위치를 능동적으로 성찰하고 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방대한 사이버공간에 다양한 팟캐스트에서 날로 구축되어 가는 작가와 매개자의 대화들의 아카이브(저장고)는 그 대화에 ‘접속’하는 이들에게 작품이 기대하는 내포 독자로 위치로 자신의 위치를 조정하는 일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팟캐스트와 같은 새로운 소통 방식이 문학의 장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기준의 작가-작품-독자의 단선적인 소통에 매개자가 생기고, 이 매개자를 통한 반대면성이 실제 독자들로 하여금 능동적인 수용과 자신의 위치 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화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문학 분야 팟캐스트들 가운데 학습 목표, 학습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료를 선별한다면, 문학교육의 장에서 문학 소통의 특성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나아가 대면성과 비대면성의 사이 어딘가에 있는 반대면성의 체험을 스스로 함으로써 스마트 시대의 문학 소통 방식의 변화를 생각해 보고, 성인으로서 생애 내내 능동적 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능력, 특히 독자로서의 성찰적 위치 설정과 그에 걸맞은 수용 활동 능력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II. 문학교육 공간의 변화: 가상 공간과 디지털 교과서

앞 장에서 스마트 기기의 출현과 함께 새롭게 구축된 팟캐스트 문화 기반의 문학 활동을 문학교육의 내용 차원에서 살펴보았다면, 그보다 조금 앞서 만들어진 인터넷 기반의 문학 소통의 공간, 그리고 최근까지의 정보통신 기술의 성과를 집약하여 개발되어야 할 디지털 교과서 등은 스마트 시대의 문학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해 고민할 때 문학교육의 방법적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교실이라는 물리적 실체와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수업과 훈육에 기반한 공동체와는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의 공동체가 개별 참여자의 문학 능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그리고 그에 비해 볼 때 디지털 교과서는 과연 현실 교실의 제약을 어떤 수준까지 넘어서며 교실 안과 밖을 유연하게 매개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면서 향후 학교 안, 학교 밖 문학교육의 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가상 공간의 문학교육: 청소년 사이버 문학 광장 ‘글틴’

‘글틴’은 청소년을 위한, 그리고 그들의 문학 활동을 위한 가상공간이다. 국가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문예 활동을 위해 2005년에 처음 개발하였으며, 청소년들과 전문 작가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http://teen.munjang.or.kr>). 이 가상공간에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시, 비평&감상글, 생활글, 이야기글의 네 갈래로 창작물을 올리고, 서로 댓글을 달며 상호평가를 한다. 또 운영기관에서는 게시판에 올라온 작품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전문작가들에게 심사를 부탁하여 주장원, 월장원, 연장원을 갈래별로 선정하여 공지하고 시상한다. 방학 때는 오프라인 행사로 청소년문학캠프를 운영하기도 하며, 그밖에 다양한 읽기 자료, 문장 클리닉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이기에 이 공간은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띠지만, 이 공간에 모여든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창작 행위는 가상공간에서 가능한 ‘자생적 교육 공동체’의 모습에 비교적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상공간에 기대할 수 있는 교육적 가능성은 무엇보다도 가상공간이 자생적인 교육 공동체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다(장상호, 2009: 296). 폐쇄적이고 한정되어 있는 인간 관계 속에서 上求와 下化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조력자로 역할을 바꾸는 것이 이 가상공간에서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이다.

‘글틴’이라는 공간은 여러 면에서 연구해 볼 만한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공간에 대한 사이버공학적 연구는 다소 지나친 이분법적 단순화를 무릅쓰고 아래와 같이 그 특성을 대비하여 정리하고 있다.

표 2. 전통적 창작 학습과 유저 커뮤니티의 창작 학습(장용호·공병훈, 2012: 192)

	전통적 창작 학습	유저 커뮤니티의 창작 학습
조직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가 지망생의 오프라인 문학 서클, 동인 또는 소규모 집단.</li> <li>작가와 지망생의 구성원 간 위계적 구조 중심의 강한 유대 공동체의 특성. 집단 내 동질성이 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가 지망생과 문학 애호가의 온라인 커뮤니티.</li> <li>작가와 지망생의 위계적 구조가 있지만 수평적 구조 중심의 약한 유대 공동체의 특성. 집단 내 다양성이 강함.</li> </ul>
참여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가 지망생의 폐쇄적, 선택적 참여와 등단 작가의 동인 집단 참여.</li> <li>문학 애호가의 참여와 작가 지망생으로의 전환에 진입 장벽이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가 지망생과 문학 애호가의 공개적이며 개방된 참여.</li> <li>문학 애호가의 작가 지망생으로의 전환에 진입 장벽이 거의 없어 크리에이티브 유저가 증가함.</li> </ul>
조직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클과 동인 집단은 대부분 10명 이하 규모이며 수십 명의 규모를 넘지 못하며 오프라인 중심 모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유저 커뮤니티는 대부분 몇 백 명 이상에서 수십 만명에 이름.</li> </ul>
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커뮤니티 내 특정한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특정적 호혜성.</li> <li>접촉 빈도가 높고 소속감이 강함.</li> <li>합평, 창작 지식, 동인 활동을 통한 협력에 대한 보상과 무임승차에 대한 처벌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방적 커뮤니티를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포괄적 호혜성.</li> <li>접촉 빈도가 자유롭고 소속감이 약함.</li> <li>합평, 창작 지식, 공모전을 통한 협력에 대한 약한 보상이 있으나 무임승차에 대한 처벌 존재하지 않음.</li> </ul>
학습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평방식과 개인적, 도제적 학습.</li> <li>창작지식은 커뮤니티 내부에서만 공유.</li> <li>문학 창작 관련 학과의 전문적 교육과 합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모전 응모와 게시판 게시 그리고 온라인과 SNS의 개방된 참여에 의한 평가와 토론.</li> <li>창작 지식이 커뮤니티 안팎으로 공유, 확산됨.</li> </ul>
작품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인지와 종이책 출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웹진과 블로그, 온오프라인 행사, 전자책과 종이책 출판, SNS 공유.</li> </ul>
기술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프라인 방식 중심으로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과 SNS 방식 중심으로 운영.</li> </ul>

글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학습의 양상은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문학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그 소질이나 관심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상호작용은 그 자체로 새로운 방식의 ‘문학교육’이라고 할 만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상공간 이전에서라면 불가능했을 전문 작가들의 조언과 지도라든가, 문학에 대한 열의와 관심을 가지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전국의 또래 참여자들의 존재,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 내는 대면성과 비대면성이 함께 어우러진 독특한 공동체의 형성 등은 이

가상공간의 뚜렷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성과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여 위 <표 2>에서와 같이 곧바로 전통적 창작 학습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재고를 요한다. 가상공간이라는 열린 공간으로의 진입에는 아무런 조건이나 장벽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이른바 ‘수준 낮은’ 참여자들이 대거 이 공간에 들어와 공간의 성격을 쉽게 변질시킬 수 있다. 다수의 선택이 언제나 참이라는 대중주의에 의하면 일시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다시 정화되어 회복될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수의 선택이 우매한 군중의 잘못된 쓸림일 경우가 더 많다고 보는 엘리트주의의 입장에서라면 일정한 진입 장벽과 전통적 도제 교육의 폐쇄성을 도입해서라도 공간의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해 텔레비전 문화에 대한 부르디외의 비판적 연구를 참고할 만하다(Bourdieu, 1998: 111-115). 텔레비전을 둘러싼 여러 현상 가운데 자본주의 시대의 무서운 권력이 되어 버린 시청률, 즉 대중주의가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고, 그러한 시장의 논리에 종속된 선택이 마치 독립적 주체들의 자율적 선택의 외양을 두르고 절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이른바 ‘입장(入場)의 권리’와 ‘퇴장(退場)의 의무’를 이야기하면서, ‘인류의 지고한 창조물의 생산과 분배’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 대중주의와 엘리트주의의 폐해를 피하려면 폐쇄적인 ‘비교(秘教)’의 자세를 버리고 개방하는 동시에 개별자로 흩어진 채 큰 흐름을 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민’으로 살아갈 조건과 수단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상공간 역시 시장(市場) 못지 않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많다. 그러므로 새로운 문화에 대한 무비판적인 옹호는 더욱 경계되어야 한다. ‘글틴’의 자발성과 공동체성으로 인해 가능해지는 교육의 유연성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것이 보다 더 생산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그 유연성이 다른 부정적 흐름에 쉽게 떠밀려 버리는 허약함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2. 바람직한 문학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방향

스마트 시대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격적인 스마트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플랫폼, 콘텐츠, 저작도구, 디스플레이 장치, 센서, 코드, 클라우드, 통신환경(Wi-Fi), 공동체와 실천 등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필요하다(이주형, 2013).

현실적으로 이 스마트 교육의 본격적 실현은 디지털 교과서에 의해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현재 사회, 과학, 영어의 3개 과목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여 2014년 적용을 앞두고 있고, 서책형 교과서의 병행 사용이라는 기조 아래 이러한 변화는 다른 과목으로도 확산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어교육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옥현진(2012), 정혜승·옥현진(2012), 정현선(2013), 오은하(2013) 등에서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중심으로 한 국어교육 분야의 스마트 교육 적용에는 조금 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미리 예견하여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실 필자는 현재까지 고안된 형태의 디지털 교과서 정도로는 교육의 혁신이라는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역할과 배우는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라면 학습자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서책형 교과서에 비해 질적으로 크게 달라지거나 양적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서책형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형태의 보조 자료들, 그리고 가상의 공간과 현실 공간을 연계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능동성과 주체성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의 기능과 활용 지원 체제는 아래와 같다.

디지털 교과서	콘텐츠 영역 (교과내용)	서책형 교과서 기본 콘텐츠			심의 대상 영역
		추가 콘텐츠 (멀티미디어 자료, 보충·심화 학습자료)			
	뷰어 영역	교과서 보기	교수·학습 지원	외부 연계	필수 제공 영역
		차례 본문검색, 이동 페이지 넘김 확대/축소 보기	주석 음성녹음 화면 캡처	플랫폼 연계 외부 콘텐츠 연계	

디지털 교과서 활용 지원체제	스마트교육 플랫폼	스마트교육지원 외부 콘텐츠	부가 지원 영역
	수업지원 도구 - e 포트폴리오 - SNS, 커뮤니티 - 학습진단 및 처방 도구		

그림 2. 교육부의 디지털 교과서 기능 및 활용 지원 체제(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2)

또한 국내외의 디지털 교과서들의 특성을 종합한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경향들을 보인다(성정숙 외, 2013: 54-55).

- ① 고품질 교육 콘텐츠 무상 제공
- ② 교과서 콘텐츠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
- ③ 학습 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 제공
- ④ 협업 학습 지원 기능 제공
- ⑤ 직접 저작을 위한 개인 출판 도구 제공

이 가운데 ①과 ②는 서책형 교과서로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을 대용량

으로, 그리고 멀티미디어나 상호작용 가능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는 교육적 의의가 있다면, ③은 학습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④와 ⑤는 학습자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sup>8</sup> 이러한 디지털 교과서 전반의 경향을 참고하면서, 앞서 스마트 시대 문학 소통과 교육의 변화를 반영하여 문학교육의 장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이 필요할지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추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문학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과서는 그 플랫폼과 콘텐츠를 지나치게 고정된 형태로 개발하지 말고 학습자 개별 활동들을 디지털 교과서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연계는 물론 유지하되, 학습자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팟캐스팅<sup>9</sup>을 한 결과를 연결시킨다든가, 기존에 이용하던 SNS를 조금 더 문학과 관련되어 전문적이거나 특화된 주제로 집중하여 운영하여 학습자들과 공유하는 등 디지털 교과서의 일부를 학습자들의 활동으로 채우게 하는 것이다. 국가나 전문 출판사에 의해 개발되는 디지털 교과서라 하더라도 학습자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학습과 함께 새롭게 학습자들이 구축하게 되는 가상의 다양한 공간들을 배제하지 말고, 오히려 상호텍스트성과 해석의 자유를 경

- 
- 8     우리는 이러한 기능들의 증가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그림 2〉의 맨 위쪽에 있는 ‘서책형 교과서 기본 콘텐츠’를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수준 높은 콘텐츠를 더 많이 소화하게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다양한 기능들이 디지털 교과서의 형태로 제공되고 그것을 모두 수행한다면, 시간이 부족하고 학습자의 집중력이 분산되어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 시절에 소화하던 기본 콘텐츠의 양조차 배우기 힘들어지면서 전반적인 학력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기술의 발전을 향유하기 어려운 여건의 학습자, 디지털 문식성의 부족으로 인한 부적응의 교사 등의 문제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과제들이다.
- 9     다른 사람과 나눌 만한 콘텐츠와 약간의 컴퓨터 지식만 있다면 누구나 디제이나 진행자가 되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방송’할 수 있다. 그것도 KBS나 MBC 같은 지상파보다 훨씬 더 멀리, 아프리카든 남극이든 인터넷이 유무선으로 연결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하다. 이러한 스마트 생성(Smart Creation)의 기술적 방법에 대해서는 임희석(2012: 61-67) 참고.

험할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 형태의 교재(이재기, 2013)로 함께 수용하는 것 이야기로 문학교육의 장에서 구현될 디지털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모습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스마트 시대의 디지털 교과서는 교실 안에서만 구동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 또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된다. 교실에 고정된 컴퓨터에서 멀티미디어 자료 한두 편을 제공하는 수준이라면 과거 비디오테이프에 비해 화질이 약간 개선된 것 말고는 스마트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교실에서 다른 곳과의 접속이 원활하여 가상의 이동이 손쉬운 것은 물론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실 밖의 유비쿼터스 환경을 보다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작가의 고향이나 작품의 배경, 문학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에 학습자의 몸이 들어섰을 때, 그 위에 ‘증강현실’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 또는 작품 향유의 경험을 온몸으로 가능하게 하는 복합양식적 텍스트의 제공과 현실 공간의 결합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초중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인들도 평생교육적 차원의 문학 교육 경험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 IV. 맺는 말

피처폰(feature phone)과 스마트폰을 비교해 볼 때, 확실히 이 시대는 피처폰이 가지고 있던 변경 불가능함과 공급자 중심의 획일성 대신 각자의 선택과 맞춤, 그로 인한 차이와 다양성, 그리고 속도와 변화, 재미를 중시하는 ‘스마트한 시대’가 되었다.

어릴 때부터 이 스마트한 문화를 경험하며 자란 세대에 대한 연구는 이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선택의 자유’를 중시한다. 둘째, 스스로에게 최적화된 ‘맞춤’을 중시한다. 셋째, 다양한 정보들을 철저하게 조사

하고 분석한다. 넷째, 관심사에 높은 성실성을 보인다. 다섯째, 협업에 익숙하다. 여섯째, 재미와 일을 통합하고자 한다. 일곱째, 속도를 중시한다. 여덟째, 혁신을 사랑한다(Tapscoff, 2009). 이러한 세대를 위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특성에 맞는 교육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스마트한 세대가 어릴 때부터 누려 온 문화는 관점을 달리해 볼 때 몸과 기운의 순환을 막는 중독과 반(反)생명적 흐름일 수도 있다(고미숙, 2012: 12-15). 그러므로 급격한 변화가 진정 교육적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 보고, 지나치게 산업적 부가가치 창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변화가 아닌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새로운 문화에 대한 과도한 환상이나 지나친 기대로 혼란을 거듭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기기만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콘텐츠와 프로그램 구축에 힘쓰며, 상대 평가와 함께 각 개인의 절대적인 '수준'을, 그리고 개인과 더불어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 폐쇄적인 교실 공간에 제한된 교육이 아니라, 현실의 문학 소통 양식, 정보와 지식의 수용-생산 방식의 특성이 반영된 교육,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 모두에 '연결된 교실'을 구현하는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IT 교육, e 러닝, 유비쿼터스 교육, 스마트 교육으로 이어 온 지난 20년간 우리 교육의 화려한 구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체제가 완성되기 전에 폐기해 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혁신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해 온 셈이다. 그럴듯한 신개념들을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만드는 것<sup>10</sup>도 좋은 일이지만 기술의

10 교육과학기술부(2011)에서 제시한 스마트 교육의 개념은 자기주도적으로(Self-directed), 흥미롭게(Motivated), 내 수준과 적성에 맞게(Adaptive), 풍부한 자료와(Resource free), 정보기술을 활용하여(Technology embedded) 공부하는 방법으로 소개되어 있다. S, M, A, R, T의 개념을 창의적으로 제시한 사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글자에 맞추다 보니 중요한 개념들이 누락된다. 예를 들어 전화, 녹음기, GPS, 사진기, 캠코더, 문서편집기 등이 따로가 아니라 '통합적(integrated)'이라는 스마트 기술의 핵심 속성이리든가 집단성, 공동체성 같은 용어들이 소홀하게 취급된다. 또 국적 불명의 용어들이 등장하여 가뜩이나 새로운 변화에 부담을 느끼는 교사들에게 불필요한 거부감을 더하는 부작용이 크지

급속한 변화를 흡수하여 동력으로 만들되 즉흥성에 따른 혼란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게 하는 유연한 중심이 요구된다.

\* 본 논문은 2014. 2. 13. 투고되었으며, 2014. 2. 14. 심사가 시작되어 2014. 2. 28. 심사가 종료되었음.

---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미숙(2013), 「몸과 인문학: 동의보감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북드라망.
- 교육과학기술부(2011),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2011. 10. 13).
- 김정우(2011), 「시의 복합양식 텍스트화, 그 양상과 특성」, 『국어교육』 136, 197-231, 한국어교육학회.
- 김혜정(2013), 「스마트 교육 환경과 국어교사의 전문성」, 『청람어문교육』 48, 97-123, 청람어문교육학회.
- 배식한(2000),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 책세상.
- 성정숙 외(2013), 「국내외 디지털 교과서 특성 및 동향 분석: 콘텐츠 플랫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7권 2호, 51-56, 한국컴퓨터교육학회.
- 신의진(2013), 「디지털 세상이 아이를 아프게 한다」, 북클라우드.
- 오은하(2013), 「중등 국어과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원리 및 전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옥현진(2012), 「디지털 교과서의 현황과 국어 교과의 디지털 교과서 수용 방식」, 『한국어문교육』 11, 29-52,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 이재기(2013), 「디지털 국어교과서 정책과 개발 방향」, 『청람어문교육』 48, 41-68, 청람어문교육학회.
- 이주형(2013), 『궁금해요 스마트러닝?』, bookLab.
- 임희석(2012), 『스마트하게 가르쳐라: 스마트 교육』, 휴먼사이언스.
- 장상호(2009), 『학문과 교육 중-II』,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장용호·공병훈(2012), 「문학 커뮤니티의 집합적 창작 과정에 대한 생태계적 모형 연구: 온라인 커뮤니티 문장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9권 3호, 163-218,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장은미·박용재(2010), 「스마트폰을 이용한 문학공간서비스의 확장」, 『정보처리학회지』 17권 3호, 87-92, 한국정보처리학회.
- 정현선(2007), 『미디어교육과 비판적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_ (2013a), 「‘도구’ 활용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한 국어과 디지털 교과서 교수·학습 활동의 비판적 검토와 제언」, 『국어교육』 140, 509-544, 한국어교육학회.
- \_\_\_\_\_ (2013b), 「SNS의 언어 현상과 소통 공간에 관한 국어교육적 고찰」, 『국어교육』 142, 79-114, 한국어교육학회.
- 정혜승·옥현진(2012), 「국어과 디지털 교과서 모형 개발」, 『교육과정연구』 30권 2호, 156-178, 한국교육과정학회.
- 조규형(2006), 「후기 인쇄문화로서의 가상공간: 소설미학과 디지털내러티브」, 피종호 엮음(2007), 『디지털미디어와 예술의 확장』, 아카넷.
- 천세영 외(2012), 『스마트 교육혁명』, 21세기북스.

- 최혜실(2007),『문자문화에서 전자문화로』, 한길사.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2),『2012 교육정보화백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창조적 가치연결, 초연결사회의 도래』,『IT & Future Strategy』 제10호, 1-39.
- 혜륜(2012),『스마트폰, 똑똑하기보다 현명해지기—정신적 활로, 스마트폰을 통한 내면으로의 소통』,『문학/사학/철학』 28, 116-145, 한국불교사연구소.
- SBS 서울디지털포럼 사무국 엮음,『커넥티드』, 시공사.
- Bolter, Jay David(1999), *Remediation: Understanding New Media*, 이재현 역(2006),『재매개: 뉴미디어의 계보학』,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_ (2001), *Writing Space*, 김익현 역(2010),『글쓰기의 공간』, 커뮤니케이션북스.
- Booth, Wayne C.(1983), *The Rhetoric of Fiction*(2nd Edition), 이경우·최재석 역(1990),『소설의 수사학』, 한신문화사.
- Bourdieu, Pierre(1994), *Sur La Télévision*, 혼택수 역(1998),『텔레비전에 대하여』, 동문선.
- Carr, Nicholas G.(최지향 옮김)(2011),『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청림출판.
- Eagleton, T.(1981), *Walter Benjamin: Or Towards a Revolutionary Criticism*, 김정아 옮김(2012),『발터 벤야민 또는 혁명적 비평을 향하여』, 이엔비플러스.
- Hillis, W. D.(2013),『얽힘의 시대,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 Brockman, John(2011), *Is the internet changing the way you think?*, 최원규 역(2013),『우리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책읽는수요일.
- Tapscott, Don(2009), *Grown up digital: how the net generation is changing your world*, 이진원 역(2009),『디지털 네이티브: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가 움직이는 새로운 세상』, 비즈니스북스.

## 스마트 교육 시대의 문학교육

김정우

이 글은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문학의 소통 양상의 변화, 그리고 문학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교육 자료의 문제를 짚어보았다. 전자는 주로 문학교육의 내용 중 한 부분에 연관이 된다면, 후자는 문학교육의 방법과 실천 부분에 해당된다.

최근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문학 분야의 팟캐스트들은 구술 시대와 문자 시대의 소통 방식에 이은 새로운 소통의 양상을 보인다. 진행자가 직접 작품을 읽어 주거나, 진행자가 작가와 대담을 하며 작품 읽기에 관한 여러 층위의 활동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구술 시대의 대면성, 문자 문화의 비대면성과는 다른 반(半)대면성이 나타나고, 이 반대면성을 통해 우리는 내포작가와 내포독자의 위치를 심도 있게 이해하게 되며, 독자로서의 성찰이나 능동적 자기 조정 등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의 청소년 공동체인 ‘글틴’도 사이버 공간의 교육이 가질 수 있는 자발성과 공동체성을 뚜렷하게 보이며 대안적 문학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의 유연성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되, 무비판적인 옹호보다 이곳이 지속적으로 좋은 공간으로 유지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교과서 역시 기대는 크나 현실적으로 서책형 교과서의 보조 자료 몇 개를 추가하는 정도에 그치게 되지 않으려면 학습자들의 활동을 상호텍스트로 수용할 수 있고, 교실 밖의 여러 상황에 연동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어 스마트 교육, 문학교육, 팟캐스트, 사이버 문학 공동체, 디지털 교과서

## ABSTRACT

# Exploring Literary Education in Environment of Smart Education

Kim, Jung-w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hanges of communication ways in the podcast programs and cyber communities for literature and to seek the desirable direction of literary education in the smart education age.

Oral literature had been produced and received by the facial relationships over thousands of years, but the ways have changed to non facial relationships as printing technology improved. Recently, as smart devices spread, authors and readers have experienced semi-facial relationship through the process of literature produce and receive on the 'podcast'. We can see a mediator and implied reader in a host of podcast, and occasionally authors can comprehend the implied meaning that they don't know fully about their works.

Literary community 'Geulteen' is typical community in cyber space. Participants in Geulteen have study and share knowledge about literature on their own initiative with interaction. These communities should be encouraged in the smart education age, bu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users to prevent good participants from being driven out by bad ones.

Digital textbooks are very important for successful achievement in the smart education age, but there should not be too much expectations. Digital textbooks for literary education need to have hypertext forms and intertextual activities, for example, podcasting by oneself, developing more specialized SNS, and organizing community to read and write literary works.

**KEYWORDS** smart education, literary education, podcast, cyber literary community, digital textbook